

성명	김영진	수험기간	2022.03.~2024.07.
학교	성균관대학교	전공	신소재공학과
키워드	기득 퇴사_후_합격 2차고득점 상표고득점		

들어가며

☑ 인사말

안녕하세요, 61기 변리사 시험에 합격한 김영진입니다.

멘탈이 약한 편이라 공부하는 동안 성적이 잘 나오지 않거나 공부의 방향성을 잃었다고 생각될 때가 많아 힘들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합격자들의 수기를 읽으면서 다들 어려운 시기를 겪었고 잘 이겨냈다는 위안을 받았습니다. 수기를 읽고 난 후에는, 저도 합격 후에 수기 작성하는 상상을 하며 힘을 내곤 했었는데, 이렇게 기회가 주어져서 감회가 새롭습니다.

제가 다른 합격자 선배님들의 수기를 보고 힘을 얻었던 만큼, 이 글이 힘든 고시생활을 겪고 있는 후배님들에게 작은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 시험 진입 관련

저는 2019년 2월부터 2022년 3월까지 회사를 다녔습니다.

다니고 있던 회사의 비전에 의문이 있기도 했고, 저 스스로도 회사원과는 성향이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고민하던 와중에 전문직인 변리사라는 직업을 알게 되어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퇴사하기 직전 몇 개월 동안 직장과 병행하여 민법공부를 했으나, 퇴근 후에는 회사업무의 잔상이 남아서 공부에 온전히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이대로는 이도저도 안 되겠다 싶어 22년 3월에 퇴사 후 전업으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1차 공부

점수 70.83점 [민법-77.5점, 산업재산권법-85점, 자연과학개론-50점, 커트-70.83점]

【민법】

☑ 교재

민법의 정석, 민법공방연습

☑ 공부방법

민법은 단독으로 40문제 출제되는 과목으로서 1차에서 가장 중요한 과목입니다. 그런 만큼 다른 과목 기본강의나 문제풀이를 하더라도, 민법은 계속해서 공부해야 합니다. 법과목이 휘발성이 강한 만큼 한 번에 몰아치는 것 보다 매일매일 꾸준히 해주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하루 공부시간에 40퍼센트 이상은 민법에 투자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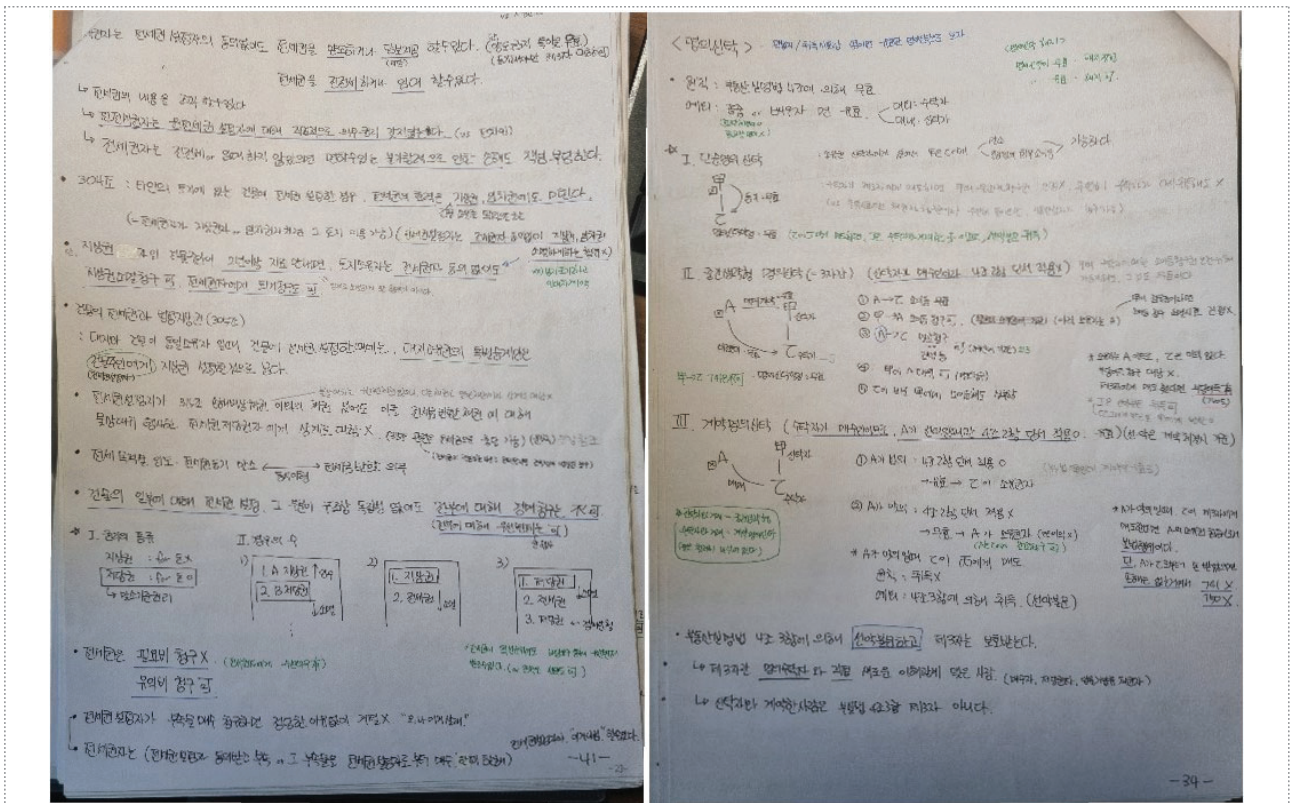
기본강의를 2달에 걸쳐 수강한 후, 계속해서 회독을 진행했습니다. 그 후에 김동진 강사님의 민법공방연습 교재와 강의가 출시되는 9월부터 2달 동안 강의수강과 함께 문제풀이를 진행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공방연습을 1월까지 5회독 정도 진행했고, 2월에는 정리하면서 김동진 강사님의 최종정리 강의를 들었습니다. 이때 당해 년도 변호사 기출문제도 1번 풀어보면서 새로운 문제 유형도 접해본 것이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 잘한 점

헛갈리는 개념이나 공방연습을 풀면서 자주 틀리는 내용은 A4에 따로 정리해놓고 이동시간에 계속 복습했습니다. 문제를 풀다 보면, 잘하는 부분은 계속 잘하는데 틀리는 건 몇 번을 풀어도 다시 틀리기 쉽습니다. 이러한 개념이나 문제를 따로 정리해서 복습한 것이 성적향상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회독을 진행할 때마다 계속해서 민법총칙부터 시작하면 뒷부분 회독에 있어서 조금 소홀하게 되는 저를 발견할 수 있었는데, 이를 막기위해 몇 번은 순서를 바꿔서 채권-물권-민법총칙 순으로 회독한 것이 뒷부분 내용에 있어서도 충실히 회독하는 것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 아쉬웠던 점

저는 기본서를 5회독 정도 한 후에는 기본서가 아닌 공방연습 위주로 회독했습니다.

사후적으로 생각해보면 밸런스를 잘 잡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59회 시험에서는 최신판례가 많이 나온 편이었고, 60회 시험에서는 기존과는 다른 생소한 문제형식이 많아서 문제풀이 보다는 기본서 회독을 충실히 한 사람들이 고득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어떤 식으로 시험이 나올지 모르는 만큼 기본서 회독, 문제풀이, 최신판례 공부의 밸런스를 맞추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늦게 진입하셔서 시간이 촉박하신 분들은 객관식위주로 공부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기본서 회독에도 많은 시간 투자하시길 추천 드립니다.

【특허법】

☑ 점수

[16/20]

☑ 교재

해례특허법, 해례특허법기출문제집, 리담특허법객관식

☑ 공부방법

4월에 기본강의를 수강한 후에 3~4회독정도를 하고 이후에 9월부터 기출문제 풀이를 병행했습니다. 10월부터는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생각되어 객관식문제도 별도로 풀었습니다.

1차에서도 민법 다음으로 중요한 과목이고, 2차시험에서도 다뤄지는 과목인 만큼 기본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본강의를 들을 때 개념을 확실히 이해하고 넘어가야 이후에 전체적인 특허법 흐름에 대해서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서둘러 객관식문제로 진입하지 마시고 이해위주의 공부를 해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 잘한 점

객관식문제를 따로 푼 것이 도움되었습니다. 난해하고 기출과는 다른 형식의 문제들을 접하면서 특허법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끌어올릴 수 있었습니다. 필수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민법 공부가 어느정도 되어 시간 여유가 있는 분들은 특허 객관식도 풀어보시길 추천 드립니다.

☑ 아쉬웠던 점

카톡방에서 조문스터디를 구해서 조문을 A4에 적은 것을 인증하는 스터디를 진행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생각해보면 불필요한 행동이었던 것이, 1차시험에서는 조문을 일부 키워드만 바꿔서 말장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을 걸러낼 정도로만 공부하면 충분한 것 같습니다. (이를 걸러내는 연습은 필요합니다!)

또한 저는 두꺼운 기본서를 보기보다는 회독수를 늘리고 싶어서 200p가량의 얇은 요약서를 보는 방법을 택했는데, 60회처럼 시험이 어렵게 나오는 경우에는 역시 기본서 충실히 공부한 사람이 유리한 것 같습니다. 또한 요약서 위주의 공부를 하다 보니 2차시험에 진입해서도 동차시기에 기본기 부족으로 힘든 시간을 겪었습니다.

【상표법】

☑ 점수

[10/10]

☑ 교재

위닝상표법, 위닝상표법판례집, 위닝상표법기출문제집

☑ 공부방법

상표법에서는 다른 어느 과목보다도 '판례'와 '조문'이 중요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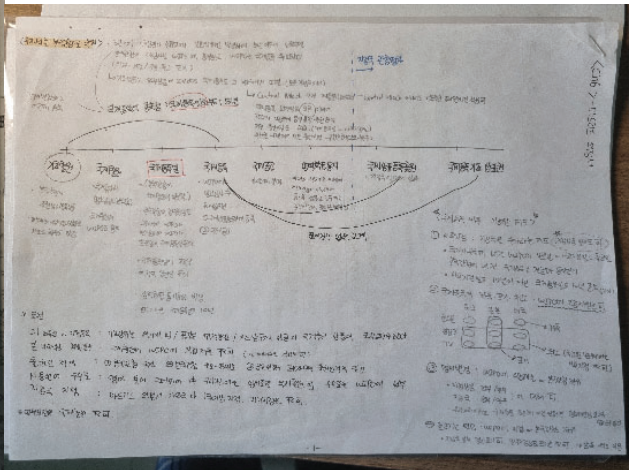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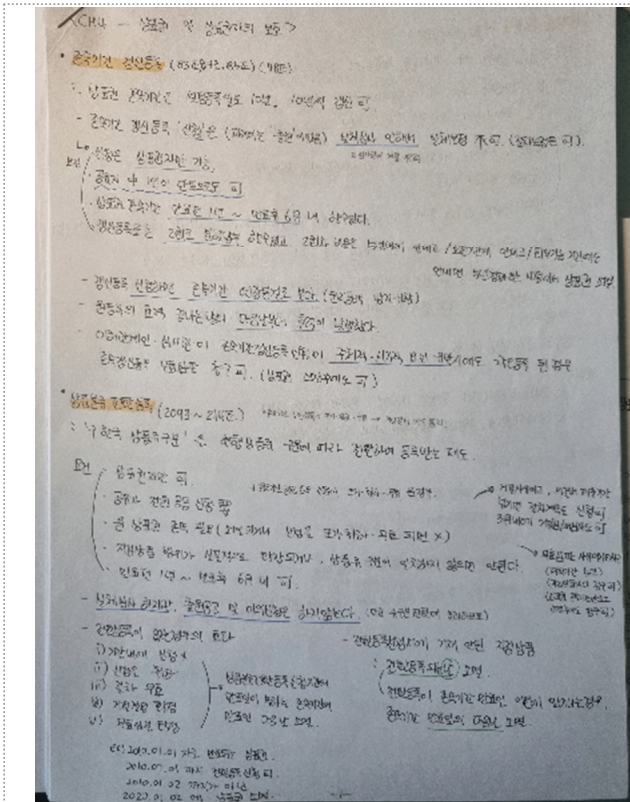
6월에 기본강의를 수강한 후, 회독을 진행하다가 8월에는 판례강의를 수강했습니다.

10월부터는 기출문제 풀이를 시작하였고, 조문 암기는 특허법과의 차이점을 위주로 문제풀이와 병행해서 진행했습니다.

☑️ 잘한 점

판례는 기본서에 어느정도 정리가 되어 있기도 하겠지만, 관련한 배경을 이해하려면 판례강의를 듣는 것이 좋습니다. 1차 공부에 있어서 필수는 아니지만, 시간적여유가 되어 판례학습을 한번 하고 나면 이후에 상표법 전반에 있어서 이해도가 급격히 상승하는 것 같습니다. 강의를 듣는 것을 좋아하는 편은 아니지만, 판례강의 들은 것은 후회하지 않을 정도로 1차와 2차 모두에서 도움이 되었습니다.

조문은 쟁점이 되는 내용을 묶어서 아래와 같이 A4에 정리하여 학습한 것이, 해당 조문 관련내용을 한눈에 볼 수 있게 해주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마드리드 절차와 같이 볼때마다 헛갈리는 부분도 A4에 한눈에 볼 수 있게 정리하여 학습한 것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 아쉬웠던 점

상표는 기출문제만 풀어도 충분한 것 같습니다. 욕심을 내어 객관식문제도 풀어보았는데, 21년도 기준으로 풀어도 풀 만한 좋은 상표 객관식 문제집은 없었습니다. 상표는 1차에서 10문제밖에 안 나오는 만큼 객관식문제 풀이보다는 남은 시간에 더 취약한 과목에 투자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디자인보호법】

☑️ 점수

[8/10]

☑️ 교재

김웅디자인보호법, 김웅디자인보호법 기출문제집

☑ 공부방법

디자인보호법은 기본강의를11월에 하루에3강씩 빠르게 수강을 마쳤습니다.

그 이후에 회독을 진행하고12월부터 기출문제집을 풀었습니다.

디자인보호법은 특허법과 많이 중복되는 만큼, 특허법과의 차이를 위주로 학습했습니다.

기본강의 수강, 기출문제 풀이, 그 이후에는 요약서로 복습만 해도 충분한 과목이라고 생각합니다.

☑ 잘한 점

김용강사님의 디보 최종정리강의가12월정도에 개강되는데, 하루동안 디보를 전체적으로 보는 강의입니다. 이 강의를 통해서 빠르고 컴팩트하게 디자인보호법을 정리할 수 있어서 많은 시간 투자 하지 않고도 디보를 빠르게 학습할 수 있었습니다.

【자연과학개론】

자연과학은 잘하는 편이 아니라 참고용으로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물리 [3/10]

* 교재: 손용욱강사 물리교재

물리는 가장 취약한 과목이었기때문에 최대한 방어적으로 공부했습니다. 많은 시간 투자하지는 않았고, 기본강의를5월에 수강후, 감을 잃지 않는 범위내에서 하루에10문제씩 꾸준히 풀었습니다. 물리는 공식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공식들만 따로 정리해서 외웠던것은 도움이 된것 같습니다.

☑ 화학 [3/10]

* 교재 : 원동신강사 IFF 화학, 이문환강사 기출문제집

수능에서도 화1,화2를 선택해서 화학에 자신이 있었지만,, 실제 시험에서는 좋지 못한 성적을 받아 가장 가성비가 안나온 과목입니다. 기본강의는 빠르게 배속으로 6월중에 들었고, 교재는 원동신강사님의 IFF 화학교재를 사용했습니다. 7,8월중에 기출문제를 수차례 푼 다음에 하루에 10문제 가량씩 단원별 모의고사 문제를 풀었습니다.

자연과학 과목중에서 경향상 화학이 가장 난해하고 가성비도 잘 안나오는 과목이니 만큼 화학은 최대한 방어적으로 공부하기를 추천드립니다.

☑ 생물 [5/10]

* 교재: 박윤강사 생물- 기본서, OX문제집, 기출문제집

8월에 기본강의를 수강후에9월에 기출문제강의, 10월에는OX강의를 수강했습니다. 한번도 깊게 공부해본적이 없는 과목이라 강의를 많이 이용했습니다. 객관식 문제를 따로 풀지는 않았고, 기출과OX문제위주로 문제풀이 했습니다. 생물이 화학에 비해서는 공부량과 비례해서 성적을 가져다 주기때문에 주력으로 공부하시길 추천드립니다.

☑ 지구과학 [9/10]

* 교재: 박준희강사 지구과학

자연과학이 약점인 분들도 지구과학은 무조건 잡아야하는 과목입니다. 지금까지의 경향을 보면 지구과학은 크게 어려운 문제가 없었고, 투자한 시간 대비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박준희 강사님 기본강의를11월에 들은후에12월에 기출문제를 풀었고, 별도 객관식문제를 풀지는 않았습니다. 기본강의교재와 기출문제 학습만으로도 충분히 고득점 받을 수 있는 과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준희 강사님의 하루 지구과학 정리 강의도 컴팩트한 정리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니 활용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수험생활】

☑ 공부환경

고시생활에서 가장 중요한것은 공부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저같이 의지가 약한 사람일 수록 유혹할 요소들을 최대한 없애고 매일 일정한 루틴을 보낼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8월까지의 집에서 공부했는데, 혼자 공부하다보니 잘 하고 있는건지 불안함도 생기고 공부효율도 좋지못해서9월부터는 노랑진에 가서 공무원준비하는 분들과랑 같은 공간에서 공부했습니다. 비록 과목은 다르지만, 같은 루틴으로 매일매일 공부하는 사람들이 곁에 있으니 공부가 아닌 판짓을 잘 안하게 되었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로 부터 자극도 받게 되어 공부 집중도가 많이 향상되었습니다. 어떤 공간이든 공부하기 적합한 환경을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 공부시간

9월에 노랑진가기 이전에는 순공시간이40~60 시간으로 들쭉날쭉 했습니다. 9월 이후부터는 주65~75시간 정도 했습니다.

☑ 휴식

8월까지의 일주일에 하루는 휴식을 취했으며, 9월~10월에는 반나절 정도 쉬었고, 10월정도 앞둔시점에서는 일주일에 하루만 저녁 먹은 이후시간에만 휴식을 취했습니다.

휴식할때는 공부할 때 생각나지 않을 것들만 했습니다. 예를들면 넷플릭스를 보면 다음화가 생각날거 같아서 일체 보지 않고, 주로 롤(칼바람)을 하거나 짧은 유튜브 시청을 했습니다.

☑ 멘탈관리

1차시험 때는 같이 변리사 준비하는 친구들이 없어서 많이 외로웠습니다. 공부할 때는 같은 공간에 같이 공부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나마 괜찮았는데, 아침에 지하철 타고 노랑진 갈 때나 저녁에 공부 마치고 돌아가는 길이 많이 쓸쓸했습니다. 퇴사 괜히 했나 생각이 들기도 하고 붙을 수 있는 시험이 맞나 싶은 마음에 후회도 많이 했었는데, 멘탈 관리한 특별한 방법은 없고 슬퍼할때는 슬퍼하다가도 정해진 공부시간에 공부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일정한 루틴이 있는 게 멘탈관리에 도움이 되는것 같습니다.

【기타】

☑ 시험장안에서 컨셉을 정하자

이 시험의 난이도는 매년 종잡을 수 없는데, 시험이 어려우면 멘탈 강한 사람이 이기고, 시험이 쉬우면 꼼꼼한 사람이 이긴다고 생각합니다. 시험장안에서 시험의 난이도를 최대한 빨리 파악해서 실수없이 꼼꼼하게 풀지, 모르는 문제를 건너뛰더라도 정해진 시간안에 모든 문제를 다 풀지 컨셉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나60회1차 시험이 특히나 어려웠는데, 컷을 보면 아시겠지만 다른 수험생 모두 어려움을 느낍니다. 당황하지 않고 최대한 시간안에 아는문제 잘 풀고 모르는 문제는 선지 줄여나가면서 잘 찍은것이 컷으로라도 붙을 수 있었던 요인 같습니다.

☑ 양을 줄이자

1차는 과목이8개나 되기 때문에, 시험일이 임박해질수록 양을 줄여야합니다. 불안함이 커진다고 해서 새롭게 양을 늘리지 말고, 하던 공부를 잘 정리해서 마지막까지 양을 줄여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차 공부

점수 59.88점, 전체 17등 [민사소송법-64.66점, 특허법-52.66점, 상표법-62.33점, 저작권법-59점, 커트라인-70.83점]

【민사소송법】

☑ 점수

43.33점 → 64.66점, 분량 23page

☑ 교재

흐름 민사소송법, 통합 민사소송법

☑ 동차

1차시험을 통과하지 못했다고 생각해서2월은2차공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3월에는 부진동이라도 해야겠다 싶어 민소 기본강의만 하루에3강씩 수강했습니다. 합격자발표가3월말쯤 난 후부터 급하게 기본강의를 마무리 하고4월 중순부터 사례강의를 수강했습니다.

5월에는 사례강의를 마저 듣는 동시에 주말에는 기초gs를 수강했는데, 아는 내용이 없어 책을 보고 적었는데, 그마저도 처참한 점수를 받았습니다.

기본서회독을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고 판단되어, 이창한강사님 사례집만 총3회독 하고 시험에 들어갔습니다. 문제 유형들에 빠르게 익숙해질수 있었다는 장점은 있었지만, 사례집과 비슷하지 않은 문제가 나오면 손도 댈수 없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1차시험 끝나자마자 민소공부 하지 않았던것이 큰 후회로 남았습니다.

☑ 기득

합격자 발표 이전: 합격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발표가 나기 이전에는 공부에 집중이 잘 되지 않아서8월까지지는 쉬고, 9월부터 하루에 50p씩 통합을 읽는 정도로만 공부했습니다.

11월-12월: 불합격을 통보받은후11월부터 바로 이창한 강사님 심화강의를 수강했습니다. 수험생들이 자주 헛갈리는 부분에 대해서 왜 헛갈리는지 비교하면서 설명해주시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수월했습니다. 고득점을 위해서는 민사소송법을 잘 봐야하는 만큼 여유있는 시기에 꼭 심화강의 수강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심화강의를 통해 민사소송법의 각 나무들에 대해 디테일하게 학습할 수 있었습니다.

1월-2월: 1월에는 민소 기출문제 풀이를 시작하였는데, 사후적으로 생각해보면 실력이 없는 상태에서 기출문제 풀이는 큰 도움이 안되었던것 같습니다.

2월에는 설날 기간을 이용해서 연휴동안 민소만 공부한다는 각오로 단권화강의를 하루에6개씩 들었습니다. 민소 전체적인 흐름을 보고 싶어서 강의를 수강하였고, 수강후에는 다시 통합으로 돌아와 회독을 시작하였습니다.

3월,4월: 3월과4월에는 객준형변리사님과 이창한강사님의a형gs를 풀어보았는데, 문제에서 어떤 내용을 묻는지 잘 파악하지 못해 성적이 좋지 못했습니다. 3월에는 기본적인 내용도 못쓰는 경우가 허다했고, 4월 초반에도40%언저리의 성적을 받았습니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목차가 잘 보이는 교재를 택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main 교재를 흐름으로 하고, 대신 빠진 내용을 통합을 보고 채워넣는 단권화를4월에 진행했습니다. 주위에서는 단권화 하기에는 너무 늦은 시기라는 조언들을 해주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때라도 단권화 했던게 민소법의 전체 나무를 보고 목차흐름을 익히기에 많은 도움을 준 것 같습니다.

단권화를 할때는 통합에 있으나 흐름에는 없는 내용을 '모조리' 추가하였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gs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 교재에 없는 내용이gs에서 나오면 불안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이 불안함을 방지하고자 일단 교재에 추가하고, 회독하면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얹게만 공부하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5월,6월: 이러한 과정을 마친 후에는 단권화 된 교재 하나만 계속해서 회독했습니다. 회독을 하면 할수록 민소법 전체 과정이 보이기 시작했고, 문제에서도 어느파트에 대해서 묻는것인지 명확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gs를 보면서 교재에 빠진 내용도 단권화 교재에 추가하였습니다. 이 시기에 실력이 급 상승했다고 생각하고 실제로gs에서도 성적이 많이 올랐습니다. 6월 이창한강사님gs에서 절반은10% 안쪽으로 들었고, 나머지 절반도20%이내에는 들 수 있었습니다.

실력이 많이 올라왔다고 느꼈을때쯤에(6월말) 기출문제를 다시 목차만 잡아보는 스터디를 진행했습니다. 기출문제 목차를 잡다보면 실제 시험에서 물어보는 방식에 익숙해질수 있고, 실제시험에서 해당문제에 대해 내가 어떻게 쓸지를 생각해볼수 있는 좋은 기회인 만큼 어느정도 실력이 쌓였을때 다시금 기출문제를 보는것을 추천드립니다.

7월: 7월에는 민소gs 4세트를 한번씩 목차만 잡아보았고, 남은 시간에는 다시 단권화 교재를 회독하였습니다. 7월에 있는 월비스 모의고사를 응시하여7월에도 쓰는 감을 잃지 않게 노력했습니다.

☑ 공부량

다른과목에 비해 민소에 많은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전체 공부시간의60% 이상을 공부했고, 공부한 만큼 급격히 실력이 오를 수 있었던 과목입니다. 회독은 처음에는2주에1회독을 하다가 마지막에는5일에1회독하는 속도로 보았습니다.

☑ 답안지

민소는 다른 과목에 비해서 더욱더 설명하듯 자세하게 적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배점이5점 이상이면 꼭 문제의 소재에서, 해당문제에서 어떤것이 논점인지 적어주었고, 문제에서 묻는 개념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도 최대한 풍부하게 적었습니다(필속이 느린편은 아니었습니다). 이때 주의해야할 점은 묻는내용에 대해서 풍부하게 적어야한다는것 입니다. 예를들면 자백이라는 글자만 보고 자백이main 논점이 아닌데도, 자백의 의의,요건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술하면 좋은점수를 받을수가 없습니다.

어떤 문제가 나오든[문제외소재-관련조문-판례의태도-문제의해결] 의 형태를 기본틀로 삼아 답안지를 작성했습니다. 다만 배점이 너무 작으면 일반적인 정의, 학설등의 내용은 빼고 판례와 사안의해결 위주로 작성했습니다.

(최근에는 민소가 10점짜리 문제만 나오는 경향이 있어, 이를 참고하시면 도움 될 것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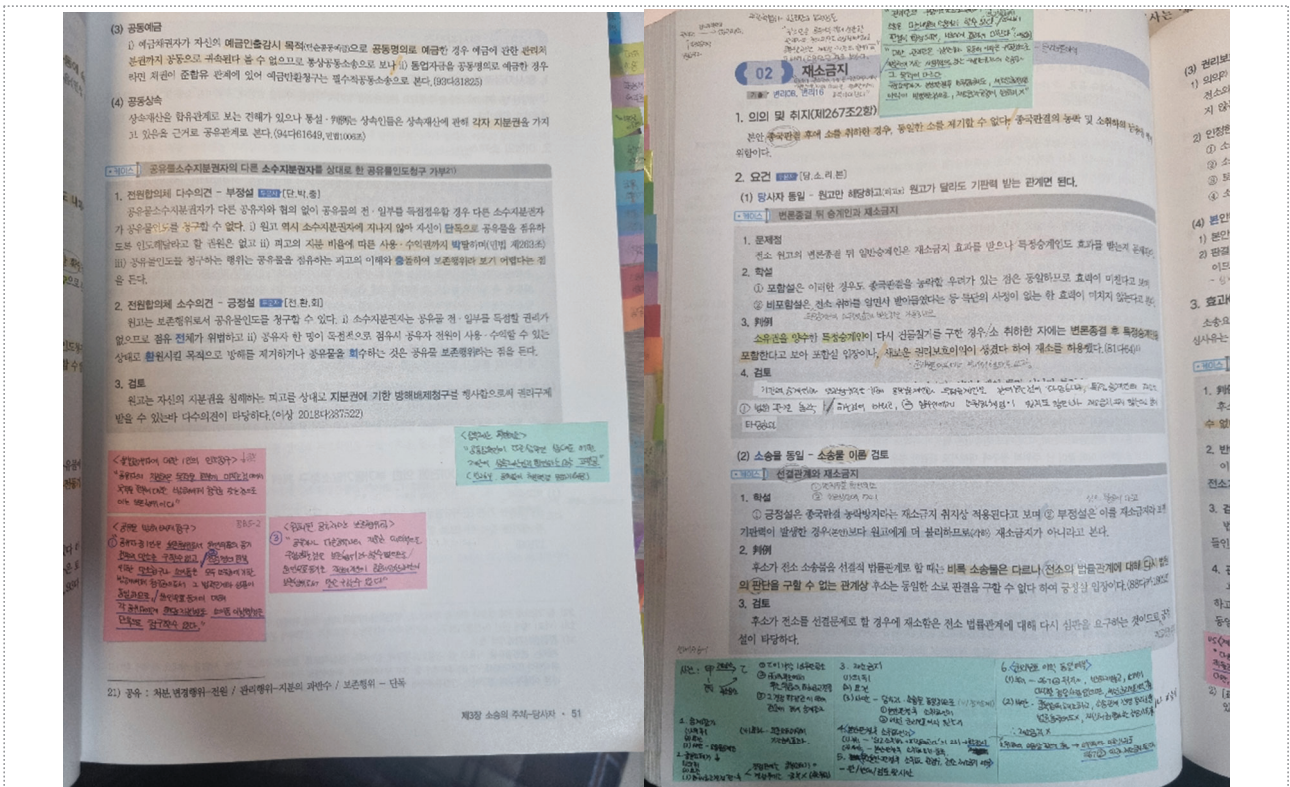
☑ 잘한 점

빈출되는 조문은 조문번호까지 전부다 외웠습니다. 그래서 관련되는 조문옆에 꼭 조문번호를 같이 병기한점이 인상을 좋게 만드는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공부할때 자주틀리는 부분이 있다면, 그 쟁점의 키워드를 익혀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예를들면 상계한 자가 상계의 인용부분에 대해서도 항소를 한다-> 상소이익이 논점이된다 라는 식으로 쟁점과 키워드를 연결시키는 연습을 하면 빠르게 묻는바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항소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면 꼭 소 변경내용도 써주기(262조), 전부승소자의 확장이면 부대항소(403조)와 상소이익 검토하기 등의 쟁점에서 꼭 검토해야할만한 내용도 책에 적어두고 연습하면 논점 누락을 방지하고 논점찾는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단권화는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했습니다. (흐름에 통합내용과gs내용 추가)



【특허법】

☑ 점수

49.33점 → 52.66점, 분량 22page

☑ 교재

준 특허법, 준 판례집, 준 사례집

☑ 동차

1차를 요약서 위주로 공부한 여파가 동차때 크게 느껴졌습니다. 객관식 선지구분만 할줄 알고 기본기가 없는 상태에서 답안지에 내용을 현출하려고 하니 답지에 쓸만한 내용이 없었습니다.

3월에 타학원의 기본강의를 수강하였는데, 답안지 작성법에 대해서 모르는 상태에서 기본강의를 온라인으로 들어니 크게 와닿지가 않았습니다. 기본기가 없는 상태에서 어설프게 회독하고, gs 푸는것은 모래위에 성을 쌓는 느낌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이때 기본강의 듣느라 시간소모 하지 말고, 기초gs플러스 강의를 들어서 답안지작성법과 암기해야할 내용을 정해주는대로 따르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 기록

11월: 기본기가 부족하다고 생각되어 11월에 바로 교재를 바꾸고 기본강의를 수강했습니다.

(교재를 바꾼 이유에는 60회 시험에서 반도체연마패드 문제가 준 특허법 교재에 그대로 있었던 것도 한몫 했습니다) 교재가 해당 쟁점에 대한 목차형식의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답안지에 그대로 바를수 있어서 학습하기에 편리했습니다. 비교적 여유가 있는 이 시기에 기본강의를 들어 특허법 전반에 대한 개념을 쌓는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12월: 이시기에는 판례강의를 수강했습니다. 특허법도 판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판례를 보면 판사님들이 자주 사용하는 문구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러한 문구를 익혀서 답안지에 현출할 수 있는 무기로 만들기 위해 기본서에 단권화했습니다. 이 시기에 특허법에 대한 전반적인 실력이 많이 향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1월,2월: 사례강의를 수강하면서, 기본서회독을 병행했습니다. 본격적인gs시즌이 시작하기 전에 간단한 사례문제 풀면서 문제풀이 감을 익히기에 좋았습니다.

3-4월: gs시즌이 시작하고, 평일에는 기본서회독을 하고, 주말에는gs를 푸는 일상을 시작했습니다. 우선 기본서를 회독할때는, 기본서에는 있지만 실제 시험에서는 현출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지우고, 각주도 필요없는 부분들을 지워가며 기본서 회독을 했습니다.

3월gs에서는 비교적 수월하게 답안을 작성할 수 있었고, 다른 강사님의gs도 접해보고 싶어4월에는 문헌돈변리사님의gs를 수강했습니다. 소수강의이기 때문에 답안지에 대한 피드백이 자세해서 문제점을 파악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고, 강사님들마다 문제를 내는 스타일도 다르고 중요시 여기는 부분도 달라 새로운 느낌의 문제를 접한다는 면에서 좋았습니다.

5-6월: 이 시기에는 박형준강사님의 콜라보gs를 수강했습니다. 5월에는 평균10%정도의 성적을 받았으나, 6월달부터는 평균50%정도의 성적을 받았습니다. gs점수가 매주 수요일에 나왔는데, 6월달에는 수요일만 되면 정말 많이 우울했고, 불안했습니다. 그 당시 내린 결론은6월달 부터는Top10의 특허법원 판례가 자주 등장했는데 그부분에 대해 많은 시간 투자하지 않았던 결과라고 생각했습니다. 성적이 안나온다고 해서 특허법원 판례를 집중적으로 공부하지 않은것은 결과적으로 이번시험에서 긍정적인 요소였던것 같습니다.

실제 시험에서는 거의 대부분이 대법원 판례를 이용하거나 조문을 이용한 문제이니 만큼, gs에서 특허법원 판례가 많이 나온다고 해서 그부분에 너무 많은 시간을 쏟는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잘한 점

특허법은 회독하면서 해당 쟁점이 나오면 어떻게 적을지 목차를 미리 정리해놓았습니다. 예를들면 진보성 판단방법에 대해 물으면 “진보성유무를 판단할때는 먼저 선행기술의 범위와 내용/진보성판단대상발명과 선행발명의 차이/ 통상의기술자의 수준에 대해 자료에 기초하여 파악하고, 그런다음 통상의기술자가 출원시 기술상식에 비추어 양 발명의 차이를 극복하고 쉽게 발명할수 있는지를 살펴봐야한다” 라는 판사님들이 자주쓰는 문구를 현출할 수 있도록 책에 메모해두고 계속 암기해 나갔습니다.

❑ 답안지

이번 61회 문제4번에서 비교적 고득점을 했는데(13점), 4-1문항은 균등론만 적기는 배점이 크다고 생각하여 문언침해/균등침해/이용침해에 대해 모두 서술한 것이 특징이었고,

4-2 문항같은 경우는 회독을 하는 과정에서 해당 문제에 대해 나오면 어떻게 쓸지 미리 준비한 문구가 있었습니다.

균등론의1요건 판단에 대해 물으면, 아래와 같이 적으려고 책에 미리 적어놓았고, 실제시험에서도 이와같이 기재하였습니다.

1) 판례의 태도: 1요건 판단은 발명전체맥락에서 판단해야하고, 마이너지구조의 변경은 고려하지 않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2) 검토: 발명전체의 맥락이 아닌 구성자체의 과제해결원리를 고려한다는 것은 상정하기 어렵다. 예컨대 나사와 못은 특정a발명에서는 과제해결원리가 동일할 수 있지만, 특정b발명에서는 과제해결원리가 다를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공부할때 해당쟁점에 대해, 어떻게 목차구성, 답안지 현출할지 생각하면서 공부하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되었던것 같습니다.

기득때 공부를 하면 할수록 가장 어렵게 특허법이라고 느꼈습니다. 이 부분은 주위의 많은 기득들이 하는 말인데, 아무래도 기술을 배제하고 추상적인 문구들로만 학습하게 되어서 어쩔수 없는 부분 같습니다. 그래도 이해위주의 학습을 통해 개념을 확실히 익히고, 판례공부를 충실히 하여 답안지에 현출할 수 있는 문구를 잘 다듬은 후에 단권화하여 회독한다면 시험에서 좋은 성적 기대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아쉬웠던 점

‘이 내용을 적으면 몇점 분량으로 적을수 있을까?’ 라는 질문에 대해 쟁점마다 답을 만들어 두고 싶었는데, 시간이 없어 하지 못했습니다.

사례 문제를 풀면서, 주요 쟁점마다 20점분량/ 12점분량/ 6점분량등 점수배점에 따라 양을 조절해보는 연습을 하고, 쓰기전에 ‘이렇게 쓰면 몇점 분량이겠다 라는 감을 미리 익혀놓을 수 있다면 많은 도움 될 것 같습니다.

【상표법】

❑ 점수

44.66점 → 62.33점, 분량 23page

❑ 교재

테마상표법, 데생 판례집, 데생 피날레

❑ 동차

1차시기에 판례강의를 미리 들어놓아서, 2차 기본강의를 따로 듣지는 않았습니다.

동차시기에는 판례집을 따로 보지는 않았고, 기본서 위주로 회독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 방법이 대 실패였다고 생각하는데, 판례의 배경을 알지 못하면서 기본서에 나온 문구만 기계적으로 암기하다 보니, 사안포섭 하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60회 시험에서 답은 다 맞았는데, 매우 낮은 득점을 한것에는 다른 수험생에 비해 판례 이해도가 낮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 기득

12월: 동차때 하지 않았던 기본강의를 수강하여 암기를 되살리고 부족했던 기본기를 채울수 있었습니다. 하루에3강씩 수강했으며, 기본서옆에 판례집을 함께 펼쳐서 둘 사이를 오가며 학습했습니다.

만약 동차때 기본강의 수강하지 않으신분들은, gs가 시작하기전인 비교적 여유있는 시기에는 특허법, 상표법 모두 기본강의를 수강하면 많은 도움 될 것 같습니다.

1월,2월: 사례강의를 들으면서, 해당 쟁점이 나왔을때 기계적으로 내용을 넣어서 작성해야할지 익혔습니다. 예를들면 ‘상표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물으면 기계적으로 [유상보정제남] 을 적고 이중에서 쟁점이 아닌 부분을 지우는 연습을 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문제에서 묻는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상표법 실력이 많이 향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2월에는gs시즌이 시작되기전에 소형강의를 듣고싶은 마음에 김주안변리사님의gs강의를 수강했습니다. 문장 하나하나마다 피드백을 주셔서, 답안지를 어떻게 적어야할지에 대해 많이 배울수 있었습니다.

3,4월: 이때는 좀더 구체적으로 어떤 ‘판례’가 나오면 어떻게 적겠다는 연습을 했습니다. 예를들면 레드불 판례가 나오면 아래와 같은 목차를 잡아야 겠다고 생각했습니다.

- 1) 인식도(상표의 사용, 공급, 기간 등이 기준),
- 2) 유사판단(외관칭호관념/ 분리관찰불가/ 도형이니까 외관이 주는 지배적인상이 중요),
- 3) 부정한목적(주창표교관사품거 中 창표관품 만 쟁점)

이런식으로 중요 판례마다 목차를 어떻게 잡아볼지 생각하며 기본서를 회독했습니다.

5,6월: 한경훈 강사님의 콜라보gs를 수강했습니다.

이 시기에는 기본서를 회독하며 판례를 넘어서서, 좀더 작은 개념인‘빈출 쟁점’에 대해서는 어떤방식으로 답안에 현출할지에 대해 많이 고민했습니다. 예를들면 상표적사용에 대해 물으면

아래와 같은 논리순서로 작성하려고 노력했습니다.

- 1)상품에 해당하는지(상품에 대한 학설, 상품에 대한 판례의 태도)
- 2)상표의 사용인지(2조1항11호)
- 3) 상표적 사용인지(품관태주의경)

5월에는 평균20%정도의 성적을 기록했으나, 6월에는 평균50%정도였습니다. 6월로 갈수록 익숙하지 않은 문제의 등장에 고전했던것 같습니다. 특허와 상표 모두 저조한 성적을 받다보니 스트레스가 심했는데, 공부방법을 바꾸기에는 너무 늦어 하던대로 기본서회독과 판례공부를 진행했습니다.

6월말부터gs 그동안 본 내용들을 복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풀답안은 아니고 간단하게 목차만 잡아보면서 다시 목차잡아도 어려운 부분들을 선별하여 따로 빼놓았습니다.

7월: 6월에gs 복습을 하면서 중요하다 생각되어 따로 빼놓은 문제들을 다시 복습했고, 기본서를 회독했습니다. 판례는 최신 판례와 주요판례만 따로 정리한30개정도의 판례만을 공부했습니다. 이 판례자료를 시험당일 점심시간에도 활용했습니다.

☑️ 잘한 점

고시반에 있는 친구들끼리 스터디를 결성하여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외운 판례를 체크해주는 스터디를 진행했습니다. 우선 외운 최신판례list를 정리한 다음, 하루에3개씩 외워와서 한사람이 판례 암기한것을 말하는 동안 나머지 사람들은 밥을 먹는식으로 스터디를 진행했습니다.

첫번째 사이클을 진행할때는 해당 판례의 사실관계가 어떤지를 위주로 암기하였고,

두번째 사이클에서는 실제 문제가 나오면 어떤 목차로 적겠다라는 것을 공부해와서 공유했습니다. 다른사람들과 말할 기회가 없는 고시생활에서 말할기회도 가지고 외롭지 않게 밥을 먹을수 있었으며, 매일 강제로 조금씩 판례를 암기하다보니 어느새 판례의 제목만 들어도 어떤식으로 문제가 나올지 예상이 되어 상표법 공부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해당 스터디를 진행한4명 모두61기에 합격했습니다.

☑️ 공부 비중

판례는 스터디 진행하면서3개씩 외워주었고, 별도로 기본서는 계속 회독했습니다.

실제 시험에서는 어떻게 현출할지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회독을 진행했습니다.

☑️ 사안 포섭

사안포섭은 배점에 따라‘시간이 허락하는대로 많고 풍부하게’ 적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예를들면‘충주’가 주지한 지역인지’에 대해 적어야할 경우, 충청도가 충주와 청주의 합성된 말로서, 충청도의 대표적인 지역중 하나다 라는 식으로 문제에 주어지지 않았어도 필요하다면 말을 만들어서 적었습니다.

이번61회 문제4번에서도‘Spring fitness’에서spring과fitness 부분 각각의 식별력을 판단했어야 하는데, 이에 대해서 spring은‘봄,봄날’이라는 의미로서 단순히 탄력성 있는 스프링만을 의미하는것이 아니고 따라서 암시할뿐이다 라는 식으로 양을 늘려 포섭하였습니다.

그 결과 해당문제에서14점이라는 고득점을 할 수 있었습니다.

☑ 단문 대비

나올수 있는 단문에 대해서는 교재 맨 앞에 포스트잇으로 정리하여 회독할때마다 참고했습니다. 단문은 한번 눈도장을 찍기만 해도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훨씬 수월하게 풀수 있으니 한 켤매를 깊게 고민하는것이 아닌, 여러 단문 켤매에 대해 정리해두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예를들면 상표법에서 '동일성이 요구되는 내용' 이라는 주제가 있으면 '33조2항, 89조, 111조, 119조1항3호, 보정범위, 조약우주, 선사용권, 121조' 등이 켤매에 될수 있다라고 미리 준비하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gs등에서 단문 문제를 맞다뜨리면 생각나는만큼만 쓰고 너무 많은 시간 할애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미리 준비하지 않은 단문은 자세하게 적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순간 기억나는 한도에서 답안을 작성하고 그 시간에 잘 공부해온 부분을 더 디테일하게 적는게 유리합니다.

【저작권법】

☑ 점수

56점 → 59점

☑ 교재

Share 저작권법

☑ 동차

저작권법은 정말 적은 시간을 투자한 과목입니다. 동차시기에는 민소에 치여서5월에 처음 저작권 기본강의를 수강하였고, gs를 풀 시간도 없다고 생각되어 실전gs 1세트를 중복되는 켤매를 지우면서a4에 정리한후에 그gs 내용만 달달 암기하였습니다. 어차피 떨어지면3법때문에 떨어지지 저작권법 때문에 떨어지지는 않을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저작권법을 공부했고, 실제로 저작권때문에 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기본서는 총2~3회독 정도했고, gs 내용정리한 것은(A4 8장분량) 5~6번 정도 본 것 같습니다.

실제로 답안 풀세트는 한번도 적어보지 못했습니다.

☑ 기득

기득때도 다른과목들에 집중하고 싶어 저작권은 거의 공부하지 못했습니다. 6월달부터 기본서를2회정도 빠르게 회독한 후에 gs 1세트와 기출문제를 서로 중복되는 내용을 제거하고a4에 내용정리를 한 후 그 정리본만 계속해서 암기했습니다. (다만 이것보다는 빨리 시작하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다른과목에 밀려 너무 늦게 시작하다보니 중요한6,7월에 선택과목에 시간투자해야되는 불상사가 생겼습니다)

저작권은 나올수 있는 문제가 한정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gs 위주로 실제로 어떤 내용이 켤매에 되는지 파악하면서 공부하는것이 선택과목에 시간 적게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인것 같습니다. 이때, 한 강사님의gs만을 듣는것이 빈 구멍이 생길수 있으니, 최소2분정도의gs를 풀답안 말고 목차정도 잡아보는 것이 많은 도움 될거라 생각합니다.

7월에는 윌비스 김선화 강사님의 모의고사를1,2회 수강하였는데, 이번61회 시험에서는 여기서 대부분의 문제가 적중하여서, 공부한 양에 비해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답안지】

☑ 글씨

교수님들이 채점을 빠른시간에 하기때문에 보이는 인상이 분명 영향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글씨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다른사람들이 알아보기 힘든 글씨체를 구사하고 계시다면 ‘백강고시체’ 교재를 사셔서 따라 써보기를 추천드립니다.

글씨가 알아볼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특정 글자를 더 빠르게 쓸 수 있게 되어 필속이 향상됩니다.

☑ 문제지 표기

gs를 풀면서 특정 단어들을 못 읽어서 너무 크리티컬한 실수를 여러번 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런 실수를 줄이기 위해 문제지에는 형광펜으로 그으면서 문제를 읽었고, 펜으로 밑줄들을 치는것보다 깔끔해서 보기 좋았습니다. 형광펜을 사용하고 부터는 단어들을 안 읽거나 누락하는 실수가 줄어들었습니다.

☑ 답안 형식

한눈에 보이는 답안지를 작성하는것이 중요합니다.

문제의 소재(쟁점) - 쟁점에 대한 설명(조문 등) - 학설- 판례의 태도- (검토) - 결론의 형식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특히 문제에서 묻는바에 따른 답을 ‘결론’ 목차를 통해 꼭 다시금 써줬습니다. 예를들면 주장이 타당한지 논하라고 했으면, 결론목차에서는 꼭 한줄로 타당한지 아닌지를 언급해줬습니다.

형식없이 두서없는 답안지는 비슷한 내용이 담겨있어도 그것을 전달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꼭 답안지 형식에 대해서는 자신만의 방법을 고민해보시길 바랍니다.

☑ 목차

저는6월부터는 목차는 따로 잡지 않았고, 문제를 읽으면서 해당 키워드에 동그라미 치고 관련된 쟁점을 옆에 적었습니다. 예를들면 상표문제에서 ‘지정상품으로00을 상표등록 할수 있는지 논하시오’ 라고 물어보면, Yes/No를 적은 후에34조1항몇호가 문제가 되는지만 숫자로 간략히 적은후에 답안작성에 들어갔습니다. 다만, 목차는 처음 공부단계부터 안적으면 중구난방의 답안지를 작성할 수 도 있으니, 해당쟁점에 대해 익숙해진 이후에 목차생략하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목차는 따로 안잡고, 문제 읽으면서 키워드에 동그라미 치고 거기에 관련 쟁점 적기

【수험생활】

☑ 환경의 중요성

2차도 마찬가지로 공부하는 환경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2차 공부할때는 다니던 대학교의 고시반에 들어가서 생활했습니다. 1층로비에 신발장이 있었는데, 늦잠을 자다가 늦게온 날에 제 신발빼고 다른 신발이 모두 빼곡하게 차 있을때면 아침부터 많은 반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상스터디, 판례스터디, 쓰기 스터디등 다양한 스터디를 하며 도움을 주는 동시에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고 자극을 서로 받으며 열심히 공부했다고 생각합니다.

의지가 정말 강한 분이 아니라면, 최대한 비슷한 공부를 하는 사람을 찾아 같이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면 많은 도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공부시간

1월부터는 일요일에gs 보고 난 이후부터 휴식을 취했고, 월요일 아침에는 점심먹고 부터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공부는1주일에70~75시간 정도 했었고, 6월말부터는80시간 조금 넘게 공부했습니다.

☑ 공부비중

민사소송법(60%) : 특허법(25%) : 상표법(15%) 정도의 비율로 학습했습니다. (5월까지)

그 이후에는 하루에30분정도 저작권법에도 시간 투자했습니다.

☑ GS성적

3월이 되어gs시즌이 시작되면, 매주 나오게되는gs성적에 울고웃는 경우를 많이 보았고, 저 또한 많이 힘들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생각해보면 저는gs내내 잘하던 민사소송법은 합격자기준으로 평균정도밖에 못했고, 마지막에60퍼센트 까지도 받아봤던 특허법과 상표법은 꽤 고득점 할 수 있었습니다. 주위에도gs에서는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으나 합격한 친구들을 보면, 시험당일에 마음 굳게 먹고 기량을100퍼센트 발휘하는게 중요한것 같습니다.

말처럼 쉽지 않겠지만, gs는 취약한 부분을 고치는 용도로만 참고하시고, 성적에 너무 낙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타]

☑ 감사한 분들

수험생활 계속 해나갈수 있게 곁에서 늘 응원하고 지지해주는 부모님 많이 사랑합니다. 힘든 나날들에 연락하면 늘 평소처럼 반겨주는 친구들, 그리고 고시생활동안 많은 도움 줬던 지연이도 너무 고마워.

특히 일년동안 동거동락하면서 같이 고생한 우리 운용재 친구들 너무 고생많이 했고, 혹시나 이번에 불운했던 친구들도 내년 에 더 단단해져서 만날거라고 믿어. 각자의 시간에서 최선을 다하다가 다시 만나자.

이번시험에 너무 운이 좋게 합격했는데, 받는것보다는 나눌줄 아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1차시험을 턱걸이로 통과하고, 동차시험도 낮은점수를 받았으며, gs에서도 마지막으로 갈수록 낮은 성적을 받아‘내가 과연 합격할 수 있는 사람이 맞을까?’ 라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저와 같은 걱정을 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시험날 딱2일, 그 날만 잘하면 된다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수험생활을 시작하기 전에 저도 회사를 다니며 수없이 고민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혹시나 회사를 다니시면서 생기는 고민이 나, 그렇지 않더라도 수기를 보고 궁금한점이 있으시면 dudwls4406@naver.com으로 메일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힘든 고시생활에서 길을 잃고 흔들릴때에 이 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간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